

김기민 “실패 두려워말고 도전하라”

한국인 첫 ‘발레 아카데미 상’ 수상

러시아 마린스키 발레단의 수석무용수인 김기민(24·사진)이 ‘무용계의 아카데미상’으로 통하는 ‘2016 브누아 드 라 당스(Benois de la Danse)’의 최고 남성무용수상을 받았다. 한국 발레리노로는 처음이다. 김기민은 18일 뉴시스와 전화통화에서 답답했다. “정말 영광스런 상이라 감사하다. 하지만 앞으로 관객분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차분히 말했다. “기대하지 않았고,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영광이었다. 지금까지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춤의 영예 라는 뜻의 브누아 드 라 당스는 발레 개척자 장 조르주 노베르(1727~1810)를 기리기 위한 상이다. 국제무용협회 러시아 본부가 1991년 제정했다. 세계 단체들이 공정한 작품이 심사대상이다.

김기민은 파리 오페라발레단, 마린스키발레단, 뉴욕 시티발레 등 세계적인 발레단에서 활약 중인 무용수들과 경쟁했다. 그동안 발레리노 김현웅, 이동훈 등 한국 남성 무용수들이 후보에 올랐으나 이 상을 받지 못했다.

국립발레단 주역 무용수이자 김기민의 형인 김기완(27)은 “기민이가 잘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큰 상을 받으니 믿기지 않고 신기하다”며 “더욱이 예술가로서 인정을 받은 상이기 때문에 더더욱 축하해주고 싶고 너무나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한국 무용수 중에서는 발레리나 강수진 국립발레단 단장 겸 예술감독(1999)과 김주원 성신여대 교수(2006)가 최고 여성무용수상을 받았다. 김기민이 한국 발레리나에 이어 발레리노의 역사를 쓰기 시작한 셈



이다. 한국인 첫 수상자인 강수진 단장은 “브누아 드 라 당스는 발레계의 오스카로 최고의 영예의 상”이라며 “김기민이 한국 발레리노의 세계 진출의 길을 열고 있다”고 기뻐했다.

김기민은 “다른 후보보다 내가 뛰어나서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겸손해했다. ‘라 바이테르’를 워낙 좋아해서 연구하고 신경 쓰고 공부한 것을 좋게 봐주시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김기민은 지난해 말 프랑스 파리오페라발레단에서 공연한 ‘라 바이테르’로 이 상을 받았다. 무희 니키야와 전사 솔로르의 비극적 사랑을 그린 작품이다. 김기민은 솔로르를 맡아 안정된 기술은 물론 뛰어난 연기

력과 심리 묘사로 호평 받았다. 평소 마린스키발레단에서도 섬세한 표현력과 진중함에 대해 높게 평가받았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신인 김기민은 ‘발레 신동’으로 불렸다. 만 16세이던 2009년 국립발레단의 ‘백조의 호수’에서 ‘지그프리트 왕자’를 맡아 국내 프로 발레단 사상 최연소로 주역 데뷔했다.

2011년에는 아시아인 최초로 마린스키발레단에 입단했다. 2012년에 솔리스트로 승급해 ‘해적’과 ‘돈키호테’에서 주역을 맡아 호평 받았다. 입단 4년 만인 지난해 수석무용수로 승급했다. 마린스키발레단에서 아시아인이 수석무용수가 된 건 그가 처음이다.

이번에 상을 받은 것보다 마린스키발레단에서 수석 무용수로 승급했을 때가 더 부담스러웠다는 김기민은 “상에 부합하는 창피하지 않는 무용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밝혔다. 하반기에도 빠듯한 스케줄을 소화해야 하는 그는 “당장 다음 공연부터 집중해야 한다”며 의젓한 모습을 보였다.

김기민의 화려한 경력에 그가 매년 성공가도만 달린 것으로 일부에서는 오해한다. 하지만 그가 상당한 시련을 겪은 건 주변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안다. 김기민은 지독한 노력으로 이겨냈다. 김기민은 “실패를 할 때마다 계속 도전했다. 상황을 좋게 만들고자 노력했다”고 전했다.

강수진 단장을 시작으로 아메리칸 발레 시어터(ABT)의 서희, 파리오페라발레단의 솔리스트 박세은 등 발레리나의 국제 무대 활약은 일찌감치 시작했다.

남자 무용수 최고 정상에 선 김기민은 “많은 경험을 통해 몸이 스스로 느끼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무엇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시도하고 도전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성주 기자

한중 합작 ‘만화영상 체험관’ 중에 개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사장 이희재)은 오는 25일 한·중 만화영상체험관이중국 산둥성 옌타이시에 개관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년간 중국과의 지속적인 만화 콘텐츠 교류 결과다. 중국 산둥성 옌타이시 문화창의산업단지 내 C6건물 1층에 설립한 한중 만화영상체험관은 체험형 전시공간으로, 중국 즈푸구 인민정부 자체예산 약 8억여 원을 투입했다.

한국 만화영상진흥원은 “한중공동프로젝트 사상 처음으로 설립된 중국 만화관련 전시관인 한중만화영상체험관은 한국 만화콘텐츠의 중국 진출 전초기지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한국 만화·애니메이션 콘텐츠의 중국 진출 디딤돌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것이라는 기대다.

진흥원은 개관식과 더불어 한중 양국 간의 만화·애니메이션 콘텐츠에 대한 미래 비전을 논의하는 ‘제1회 한중문화 콘텐츠창의포럼’을 개최, 만화 콘텐츠 IP에 대한 논의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 포럼에는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태양의 후예’ 제작사 NEW의 중국 지사장이자 화확합산문화전파유한공사 총경리인 김형철 지사장이 기조발제를 한다. 또한 한중간의 문화법 제도의 차이점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한중 합작의 합의를 모색할 예정이다.

진흥원과 중국 옌타이시는 문화창의산업단지의 교류 성과로 아시아시장을 공략하는 순수 제작비 10억 원 규모의 한중 합작 학습만화의 본편 제작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성주 기자



민속국악원 다담 국악콘서트 24일 개최

국립민속국악원은 명사들의 이야기와 국악을 함께 즐기는 국악콘서트 다담(茶談)공연을 오는 24일 오전 11시 국립민속국악원 예음헌에서 연다.

이번 무대에는 박건삼 시인을 초대해 산티아고 순례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산티아고 순례길은 중세 시대부터 수많은 순례자들이 걸었던 스페인의 세계적인 순례길로 박 시인은 이 길을 완주하고 2009년(예수 여섯이 카미노를 갈다)를 출간한 바 있다. 산티아고 순례길의 가장 대표적인 코스는 프랑스 남부 국경마을인 생장피드포르에서 성 야고보의 무덤이 있는 스페인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 이르는 800여km의 여정이다.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 1993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연주는 비리국악단이 맡아 노동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함안양잠가’를 비롯 청춘들의 꿈을 노래한 ‘청춘팩토리’, 흥겨운 정장으로 일상에 지친 이들을 위로하는 내용의 ‘달아’, 태조 이성계의 웅망함을 묘사한 ‘천궁’ 등을 들려준다. 공연은 전석 무료이며 예약은 전화 620-2327로 하면 된다.

한편 박 시인은 KBS 공채 1기 PD로 방송계에 입문 MBC 기획특집부장, SBS 라디오국장, 세종문화회관 이사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국악방송 ‘책이 좋은 밤’을 연출하고 있다. /정해은 기자

전주시립교향악단, ‘RAVEL 모음곡’ 연주

26일 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서

전주시립교향악단은 오는 26일 오후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에서 212회 정기연주회 ‘RAVEL’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프랑스 작곡가이자 오케스트라의 마법사로 불리는 모리스 라벨의 곡으로 구성되었다. 대중에게 ‘볼레로’라는 곡으로 익히 알려진 라벨은 강렬한 색채감과 풍부한 멜로디로 음악을 마치 그림처럼 펼쳐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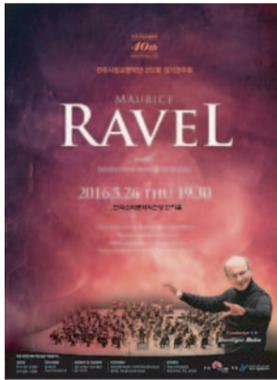
연주회의 첫 무대는 라벨의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로 연다.

‘파반느’란 궁정무곡의 일종인데, 우아하면서도 장중해 감상적인 유럽인들의 정서가 잘 느껴진다. 원래는 피아노곡으로 만들어졌지만 10년 후 관현악곡으로 편곡돼 오늘날까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 곡은 라벨이 루브르 박물관에서 화가 벨라스케스가 그린 마르가리타 테레사 공주의 초상화에 매료돼 그녀를 기리기 위해 만든 곡으로 알려져 있다.

이어지는 ‘스페인 광시곡’은 라벨의 정교하고 섬세한 음악적 특징이 배어난다. 이 작품은 스페인의 정취가 잘 묻어난 곡으로 라벨은 평소 이국적인 스페인 취향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어릿광대의 아침 노래’는 스페인 옛 광



대의 발랄한 율동과 유머, 기지에 찬 모습을 그린 곡으로 아침 일찍 사랑하는 사람의 창가에 서서 부르는 사랑 노래이다.

마지막 곡 ‘다프니스와 클로에 모음곡 제2번’은 근대 프랑스 최고의 발레곡으로 손꼽히는 곡이며 양치기 소년 다프니스와 소녀 클로에의 사랑을 아름다운 선율로 그려낸다.

티켓 예매는 <http://www.oleticket.kr>에서 하면 된다. 관람료는 S석 10,000원 A석 7,000원. 공연 문의는 281-2748.

/정해은 기자



전주전통문화관은 오는 25일 퓨전국악실내악단 소리에 공연을 펼친다.

전주전통문화관, 25일 한복배우기 체험

퓨전국악실내악단 소리에 공연도

전주전통문화관은 오는 25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한복배우기 체험’과 ‘퓨전국악실내악단-소리에’의 문화행사를 마련한다.

웃고름·대님 매기 등 한복배우기 체험은 오후 6시 전주전통문화관 교육체험실에서 열린다.

접수 방법은 문화관 홈페이지 공연이벤트 게시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신청

하면 된다. 사전 접수를 통해 선착순 100명만 모집한다. 공연문의 280-7009.

곧이어 대금 가야금 첼로 등 다채로운 악기 선율을 들려주는 퓨전국악실내악단 소리에의 공연이 오후7시 전주전통문화관 혼례마당(우천시 한복극장)에서 펼쳐진다.

무대는 흡내음을 주제로 리베르트 탱고, 인연, 꽃바람 부는 길, 한오백년, fly high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꾸며진다. 체험문의 280-7046. /정해은 기자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6년 5월 20일)

<p>▷쥐띠 46년생: 구슬수, 시비가기 따르는 운. 60년생: 금전 거래나 투자는 삼가는 것이 좋겠다. 72년생: 어려움이 있다면 뒷 사람의 도움을 받아라. 84년생: 작은 일에 대한 결과는 좋으나 욕심을 부리면 화가 미치니 주의 하라.</p>	<p>▷소띠 49년생: 아랫사람으로 인해 좋은 일이 생기는 운. 61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막힘이 많이 따르는 운. 73년생: 하고자 하는 일로 인해 마음상할 일이 생기니 참고 견디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85년생: 좀 더 넓게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p>	<p>▷호랑이띠 50년생: 전체적으로 운이 하락하고 있다. 62년생: 다른 사람과 함께 일을 도모하지 마라. 74년생: 정신적으로는 편하지 않으나 결과적으로는 좋다. 86년생: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미우리에 중점을 두어라.</p>	<p>▷토끼띠 51년생: 타인의 말을 끝까지 들어줘라. 63년생: 문서를 주고 받는 일에는 좋은 운. 75년생: 이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할 때, 임지가 있는 이성이 다가올 수 있다. 87년생: 금전적으로는 평이한 운.</p>
<p>▷용띠 52년생: 덕을 쌓으면 좋은 일이 생기는 운. 64년생: 윤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손조로운 하루가 된다. 76년생: 눈앞에 고지가 보이니 전진하면 좋은 결실을 얻는다. 88년생: 인간 관계를 넓힐 수 있는 운.</p>	<p>▷뱀띠 53년생: 자식은 원하는 것을 얻는 때가 아니다. 65년생: 자신이 혼자 판단하면 실재수가 따르니 조언을 구하고 의견을 분석하라. 77년생: 속에 있는 말을 삼가라. 89년생: 타인과의 관계에 신경써야 하는 운.</p>	<p>▷말띠 54년생: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일찍 움직여라. 66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은 운이다. 78년생: 다른 사람과의 의견 충돌로 인해 마음 상할 상황이 생기니 미리 예방하라. 90년생: 사고수가 있으니 주변을 조심하며 윤행은 삼가라.</p>	<p>▷양띠 55년생: 다른 사람의 일에 나서지 마라. 67년생: 큰 욕심을 부리면 운이 막히니 작은것에 만족하는 것이 좋겠다. 79년생: 뜻이 맞는 사람을 찾기 힘들때이다. 91년생: 다른 사람의 불화가 발생할 수 있는 운이니 주의하라.</p>
<p>▷원숭이띠 56년생: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소중히 대하라. 68년생: 처음에는 의견이 일치 하지 않아 고전하나 나중에 나 풀린다. 80년생: 다른 사람과의 화합에 좋은 날. 92년생: 손해본 만큼 회복이 되는 운이다.</p>	<p>▷닭띠 57년생: 한번 입에서 나온 말은 꼭 지켜야 하는 운. 69년생: 진중하게 행동하라. 81년생: 객관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운이다. 93년생: 뜻밖의 수확이 있는 운이니 매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라.</p>	<p>▷개띠 46년생: 무리한 요구는 인간 관계에도 안좋은 영향을 주니 주의하라. 58년생: 건강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운이다. 70년생: 기혼자는 부부불화가 예상된다. 82년생: 하고자 하는일에 겸손함이 꼭 필요한 운이다.</p>	<p>▷돼지띠 47년생: 금전적인 이익이 따르는 운. 59년생: 때를 기다리며 자중해야 할 운이다. 71년생: 비뻔일은 있으나 성과는 약한 운이니 마음을 비워라. 83년생: 순간적인 판단으로 진행하면 무리수가 따르니 뒷사람의 조언과 함께 움직여라.</p>